

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과제

2010. 6. 21.

한 국 은 행
총재 김 중 수

I.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평가

(세계경제)

- 세계경제는 비록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가 수시로 발생하여 미래예측을 어렵게 만들고는 있으나 대체로 지난해 2/4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음
 -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통화·재정정책 및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재고 보충을 위한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하였음
 - 금년 들어서는 각국의 재정정책 효과가 줄어들었으나 세계교역 증가, 고용사정 개선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회복 움직임이 점차 뚜렷해지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경기재침체(double-dip)에 빠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음
 -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닌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, 인도의 고성장과 함께 역내교역 증가 등으로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
-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최근 IMF,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신흥시장국은 물론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하였음

IMF 및 OECD의 주요국 2010년 GDP성장률 전망

(전망시점)	IMF		OECD		2009년 실적
	10.1월	→ 10.4월	09.11월	→ 10.5월	
선진국	2.1	2.3	-	-	-3.2
(미국)	2.7	3.1	2.5	3.2	-2.4
(유로)	1.0	1.0	0.9	1.2	-4.1
(일본)	1.7	1.9	1.8	3.0	-5.2
신흥시장국	6.0	6.3	-	-	2.4
(중국)	10.0	10.0	10.2	11.1	8.7
(인도)	7.7	8.8	7.3	8.3	7.4
(한국)	4.5	4.5	4.4	5.8	0.2

- 그러나 최근 남·중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성장전망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됨

- 남·중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과거 리먼사태와 같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에선 유로시스템 유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EU, ECB, IMF, 미연준 등에 의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
- 그러나 남·중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해지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음

(국내경제)

□ 국내경기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
-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책대 및 금융완화 정책이 경기회복을 견인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정책효과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
 - 이와 함께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민간부문 자생력의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사정도 최근 들어 점차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□ 이러한 국내경기의 회복세를 다른 OECD 회원국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

-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.2%의 GDP성장률에 그쳤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,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함
- 또한 지난 5.26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중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(5.8%)는 회원국중 터키(6.8%)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

□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적지 않은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음

- 유럽지역 재정문제,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우려 등 해외 불안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해외충격에 취약한 체질임
- 또한 전체 GDP의 18.4%(2009년 기준)를 차지하는 건설투자부문이 계속 부진하고 고용의 경우 취업자수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(10.5월 59.1%, S.A.기준)이 아직 리먼사태 이전 수준(08.1~6월중 59.8%)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
GDP 성장률 전망¹⁾

	(전기비, %)				
	2009	2010 ^{e)}		2011 ^{e)}	
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GDP 성장률	0.2	1.2 (6.6)	1.0 (4.0)	5.2	4.8
민간소비	0.2	0.8 (5.0)	0.9 (3.0)	4.0	4.0
정부소비	5.0	2.5 (2.7)	-1.3 (2.0)	2.3	3.7
건설투자	4.4	0.9 (1.7)	0.1 (2.3)	2.0	2.3
설비투자	-9.1	0.7 (22.9)	1.0 (5.7)	13.4	7.9
상품수출	0.0	2.9 (15.1)	2.1 (9.1)	11.9	11.1
상품수입	-7.9	4.4 (18.1)	2.3 (12.7)	15.3	9.2

주: 1) ()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
2) 2010년 4월에 전망한 수치이며, 7월 중순에 수정보완할 예정임

- 소비자물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2%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
 - 이는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GDP gap이 줄어드는 등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되는 데다 그간 억제되어 온 공공요금 인상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함

- 경상수지는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상품수지의 흑자가 줄어들고 해외여행 지급이 늘어나면서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

소비자물가 및 경상수지 전망

	(%, 억달러)				
	2009	2010 ^{e)}		2011 ^{e)}	
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소비자물가 ¹⁾	2.8 (2.8)	2.5 (1.2)	2.7 (1.6)	2.6 (2.8)	3.3 (3.2)
경상수지	427	25	80	105	55
(상품수지)	561	153	160	313	294
(여행수지)	-39	-52	-60	-112	-143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()내는 전기말월대비

2) 2010년 4월에 전망한 수치이며, 7월 중순에 수정보완할 예정임

II. 향후 통화정책 과제

- ◆ 우리경제가 물가안정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중앙은행으로서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, 기업구조조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뒷받침 등에도 노력

(시의적절한 금리정책 운용)

- 한국은행은 리먼사태 직후인 2008.10월부터 2009.2월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%로 대폭(325bp) 인하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금융·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였음
 -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및 시장안정정책과 함께 금융시장을 신속히 안정시키고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됨
- 2009.3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회복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%로 유지해 오고 있음
-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지난 6.10일의 금통위 의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방침임
 - 현재의 금융완화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과 남·중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이 세계경제 성장전망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

(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제고)

-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-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개별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만으로 보장될 수 없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(macro-prudential policy)이 긴요하며 이러한 정책에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관한 종합적 분석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위기 발생시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함

- 금년 11월의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에 관한 개혁안이 제시될 때 거시건전성의 정책체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
 - 거시건전성 정책수단,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기준, 조기경보활동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
-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
 - 우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범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정책수단 확보와 정책대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
 -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화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금융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각국 정책당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 - 최근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음
- 중앙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양되어야 함(capacity building)
 - 주요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 실무인력을 파견하여 교육·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

(경제체질 강화)

-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
 -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함
 - 또한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들에 지원되던 자원을 창업지원에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고양하여야 함

- 한편 우리경제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충격을 잘 견디면서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함
 -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있을 수 있으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이루어지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

Ⅲ. 맺음말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님
 -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
 - 또한 금융안정 역할과 같이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는 많아진 반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인 실정이며 이는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
- 이와 같은 여건에서 한국은행이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고 권위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능력 배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해 나아가겠음
 -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
- 아울러 정책운영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정부 및 금융감독기구와 각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에 더욱 힘쓰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임